

교회소식

- 당분간 이렇게 영상으로나 함께 예배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손 맞잡고 인사하고 함께 입을 모아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로 된 일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비상한 시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간구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예배당엔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찾아보고 모여 교제할 수 없지만 기도와 권면 가운데 서로 더욱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일하고 공부하던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그만큼 서로 든든하고 소중해지는 사랑이 단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웃과 형제를 더욱 마음에 담아서, 주님안에 한 몸 된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주일예배를 인도합니다. 유튜브의 화면에서 진행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 인도에 따라 혼자서, 혹은 가족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면 속의 목사의 예배와, 혼자서 혹은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일예배 실시간 송출이 시작되면 유튜브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은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정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예배 순서와 설교 요약, 토의 제목등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역시 세광교회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도움이나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담임목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섬기는 사람들

3월 안내: TBD
다음 주 대표기도: TBD
이번 주 친교: TBD
다음 주 친교: TBD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은혜를 범상히 여긴 것을 회개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환자들과 가족들, 의료진, 연구진, 정책 수립과 집행자들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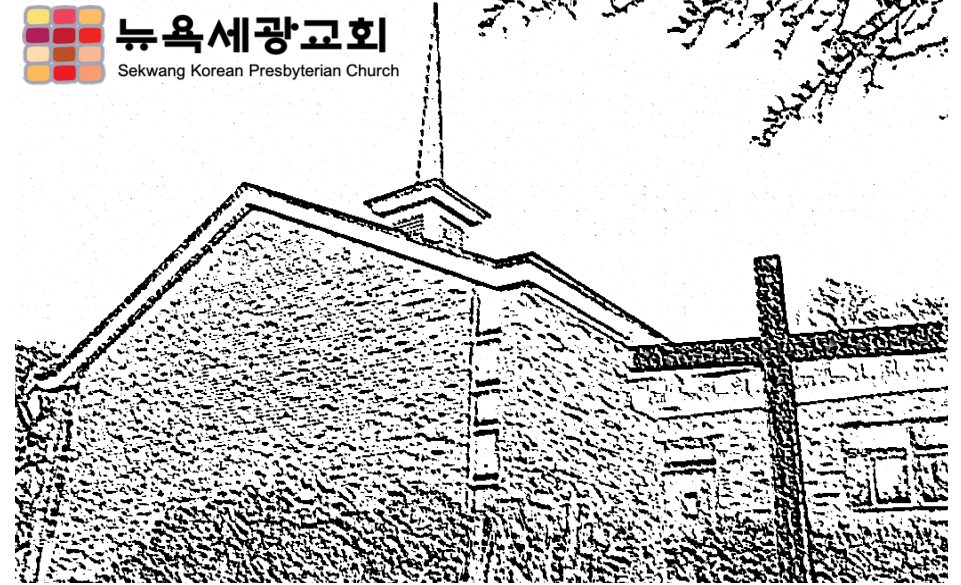
사회적 거리 두기와 활동 제한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제20권 12호

2020년 3월 22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 5:14)

당분간 주일예배(오전 11시)와 매일 새벽기도(화-토 오전 6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뉴욕세광교회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성경공부 및 모임

출애굽기 성경공부	목 8pm / 회의실
	토 7:30am / 회의실
중·고등부 성경공부	금 8pm / 중·고등부실
새가족 모임	주일예배 후 목회자실
구역 모임	구역별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민영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영미

교회 연락처

(914) 874-3606 / nyskch@gmail.com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Homepage: www.nysekwang.org
Podcast: 뉴욕세광교회 주일설교

English Worship Sermons @ Sekwang



주일 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함께
Opening Hymn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예배를 여는 기도 -----	인도자
Opening Prayer	
신앙고백 -----	다함께
Apostle’s Creed	
찬송 ----- 80장(통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다함께
Hymn There is no Name so Sweet	
대표기도 ----- 시편 23편 -----	인도자
Prayer Psalm 23	
헌금 및 감사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성경봉독 ----- 마태복음 2:1-12 -----	인도자
Word of God Matthew 2:1-12	
설교 -----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헬에서 나시매” -----	이민영 목사
Sermon	
찬송 ----- 91장(통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다함께
Hymn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지난 주 주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마태복음 1:18-25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임마누엘) 인간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셨습니다. 약혼한 부부에게서, 우리와 동일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쳐 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탄생과 같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사람들의 기도보다 달랐습니다.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이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믿음과 순종, 희생과 사랑으로 이어져 왔듯이 예수님의 나심에도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과 의로움이 사용 받았습니다. 어린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일을 받아들인 마리아(1:38), 동거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욕보이지 않으려고 가만히 끊고자 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은 달랐습니다. 요셉의 참된 의로움은 자신의 판단으로 최선을 다한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따른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의로움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예수가 나셨습니다.

그가 오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나 보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베풀러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인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고, 조금 가르쳐 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도 조금 고쳐보거나 좋은 것을 배우는 것으로는 안되고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성장과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의 노력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새 생명입니다. 거듭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상식적, 도덕적, 인간적인 의로움을 넘어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와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라고 성화되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Memo>

